이인범 목사님 역사자료

- 출처: 강경성결교회 100년사 (124~139쪽)

3. 제3대 이인범(李寅範) 전도사(1922-1924년)

제3대 담임교역자는 이인범 전도사다.[29] 그는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1920년 졸업하였다. 그의 첫 사역지는 경안교회였다. 이듬해인 1921년 1월 무교정교회로 옮겨 사역하던 그는 1922년 예배당 신축을 계획 중인 강경교회에 임명되었다.

이인범 전도사는 성결교회 전통에 서서 사역하던 인물이었다.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부흥회 혹은 전도집회 기간 동안 매일 3-4차례 모임을 가졌다. 새벽기도회, 오전 성경공부, 오후 전도와 저녁 부흥회라는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는 성결교회가 복음전도관 시절부터 보여주었던 특징이다. 강경교회 부흥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1924년 1월 첫째 주간에 배선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었을 때였다.[30] 그 때도 전통적인 성결교회 부흥회 방식을 따라 매일 4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성결교회의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은 유년주일학교에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강경교회 주일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매우 열심"이었다는 소식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31] 주일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여러 팀을 만들어 길거리 전도와 개인전도에 전념하였다. 이런 특징은 주일학교를 포함한 강경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이었다.

이인범 전도사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강경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은 이인범 전도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그 예

29 이명직, 『성결교회약사』, 82.
30 "강경성결교회 부흥회," 『활천』 제2권 제3호(1924. 3), 55.
31 "강경교회 주교생의 전도열," 『활천』 제2권 제8호(1924. 7), 56.

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음에도 계속 본인의 이름을 고수하였다.[32] 그것은 그의 반일 감정, 즉 민족 의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강경교회의 신사참배 사건에 대하여 주로 백신영 전도사나 김복희 선생을 언급하지만, 이인범 전도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성향이 표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표출되기 전에 그의 사역지가 바뀜으로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다. 그의 민족적 인식은 백신영 전도사나 김복희 선생도 함께 공유하였고, 어린이들도 그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판석 어린이의 일본역사교육 거부사건도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옥예배당 건축의 기쁨도 잠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11일 강경공립보통학교 어린이들의 신사참배 거부사건이 일어났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핵심인물은 강경교회 성도인 김복희 강경보통학교 선생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강경교회 어린이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이 터졌다. 신사참배로 새로운 통치체계를 구축하려던 일제의 계획이 강경교회 아이들로 훼손이 되자, 총독부와 교육부와 학교는 신사참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고 무리수를 두었다. 김복희 선생은 강제 휴직되었고, 몇 명의 어린이들은 퇴학당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성결교회본부는 담임교역자였던 이인범 전도사를 동막교회로, 동막교회에서 사역하던 임종륜 전도사를 강경교회로 임명하였다.[33]

32 《조선총독부 관보》, 1943.9.30.
33 "동막, 강경 양교회전도사 상황," 『활천』 제2권 제13호(1924. 12); 이명직, 『성결교회약사』, 83; 《조선총독부 관보》(1925. 1. 29.)에 따르면, 이인범 전도사가 1월 중에 교회를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교역자 이동에 대한 허가는 총독부 소관이었기에 실제와 보통 2-3개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동양선교회는 급히 이인범 전도사를 임종륜 전도사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1) 북옥동 93번지 한옥예배당 건축(1924년)

강경교회 한옥예배당이 토마스 감독의 배상금으로 지어졌다는 주장과 미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두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내용이 동양선교회 기관지 *OMST*에 실렸다. *OMST*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강경교회는 "강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며,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별된 두 자녀(a couple of consecrated children)로 말미암아 건립되었다. 그 가치를 감히 헤아릴 없다."[34] 강경교회 건축을 위해 토마스 감독이 헌금했다는 내용 없이 "성별된 두 자녀"로만 표기되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연 때문이다. 당시 한옥예배당을 짓는데 토마스 감독이 총독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부가 헌금된 것이다.[35]

1920년 2월 토마스 감독은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영국이 아닌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두 딸이 미국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그 뒤 그는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가 한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일경은 한국에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를 24시간 따라다니며 온갖 질문을 던졌다. 일경이 집요하게 따라다니자 토마스는 원산에 머물다가 중국 선교사들의 강의요청을 핑계로 출국하였다.[36] 10년이 지난 사건이었음에도 일경이 토마스 선교사를 따라다닌 것은 그만큼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동양선교회의 길보른 감독이 언급했던 것처럼 토마스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이런 이유로 강경교회의 건축에 토마스의 이름

[34] "OMS Notes for Prayer and Praise," *OMST*(1924. 10), 2.

[35] "배상 오천원," (재판 크로니클), 1919. 6. 13. "총독부는 강경에 일어서의 일본 순사의 인민의 폭행에 대한 배상금으로 오천원을 「토마스」씨에게 지불하였다 한다." 당시 환율에 따라 오천원은 오만불로 추정된다. 한옥예배당을 짓는데 당시 5백 불에서 2천 불이 소요되었다.

[36] 자포스, 『위대한 선교사 존 토마스』, 328.

을 부각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토마스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명과 같은 보상금으로 헌금한 그를 기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토마스 부부의 희생과 헌신은 현재의 강경교회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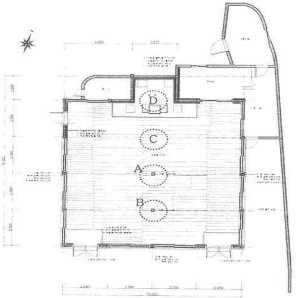
1924년 9월 이인범 전도사는 미국의 "하나님의 성별된 두 자녀"의 헌금과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북옥동 93번지 토지를 구입하였다. 동양선교회는 유지재단 이사였던 E. A. 길보른과 동양선교회 대표 카우만의 명의로 1923년 10월 3일 북옥동 93번지대지 189평(400엔)을 매입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다.[37] 이것은 강경교회가 독자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동양선교회가 지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4-2-2〉의 강경교회 평면도를 보면,[38] 앞에 강대상이 있고, A와 B에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천으로 칸막이를 쳤다. 칸막이는 남자석과 여자석을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출입구도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여자들을, 오른쪽은 남자들을 위한 전용문이다. C와 D도 기둥이 있어야 했지만, 설교자의 개방성을 위하여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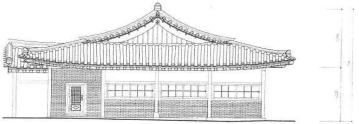
[37] "재단법인 [예수교동양선교회 유지재단]에 관하여 허가신청 건," 법인이사 길보른, 1923년 12월 13일 접수.

[38] 『강경 북옥 감리교회 기록화 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7), 〈그림 3-3〉 30, 36. 참고. 문화재청에서는 한옥 예배당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도시건축연구소에 위탁하여 건축공법과 실측을 조사하였다. 2004년 북옥감리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여, 초기의 형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라.

<표4-2-2> 강경교회 평면도



<표4-2-3> 강경교회 서측면도



〈표4-2-3〉은 서쪽의 측면도다.[39] 〈표4-2-4〉는 1925년 2월 강경교회 성도들이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다.[40]

<표4-2-4> 강경교회 서측면 전경

북옥동 93번지 한옥예배당은 지금 등록문화재 4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강경교회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당시 예배당이 감리교회로 잠시 넘어갔었지만, 성결교회 교단차원에서의 지원과 강경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되찾았다. 자세한 과정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앞으로 북옥동 93번지 한옥예배당은 강경교회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당예배에 앞서, 충남지방회에서는 1924년 9월 17일(수)-21일(주일)까지 새로 지은 강경교회에서 충남지방수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충

39 『강경 북옥 감리교회 기록화 조사보고서』, 〈그림3-7〉 34. 참조.
40 "동양선교회 강경예배당," 『활천』 제3권 제3호(1925. 3). 속지.

남지역의 성결교회들은 규암, 은산, 석동리, 고부실, 홍산, 금천리, 묘원리, 강경, 금당리와 대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41] 요즘과는 달리, 당시 수양회는 주일을 포함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성결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 천체가 참석한 풍성한 집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 중 40여 명의 결신자가 생겼다면, 수양회 기간에 참석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42] 강경교회 성도들은 새 예배당 건축으로 이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다. 헌당예배는 충남지방수양회를 마치는 날인 9월 21일 대전지방 감리목사 헤인스의 집례로 진행되었다.[43]

2) 상애소년단 윤판석 어린이의 일본역사교육 폐지요구사건

강경 한옥예배당 건축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갈 무렵, 윤판석 어린이의 일본역사교육 폐지요구사건이 일어났다. "강경이 낳은 천재"로 명명되었던[44] 윤판석은 어린 시절부터 행적이 두드러졌다.[45] 1910년 강경에서 출생한 윤판석은 1924년 6월 2일 조직된 상애(相愛)소년단 행동반장으로 선출되었다.[46] 그때 그는 강경보통학교 5학년이었다. 초기에 장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상애단은 소년들에게도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상애소년단을 결성한 것이다.[47] 상애청년단에 소속된 일부 청년들이 지도교사 자격으로 상애소년단을 돌보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뒤에서 도움 주는 역할로 한정했다.

1924년 어느 날, 윤판석은 상애소년단의 한 어린이가 멀한 작은 잘못에 일본인 교장이 매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달려가 교장에게 항의하였지만, 얻은 것은 한국인 멸시뿐이었다.[48] 또한 2학기가 시작될 때, 미야무레(宮牟禮) 교장이 국사과목을 폐지하고 일본역사과목을 새로 편입시켰다. 교장은 4학년이 될 때까지 가르치던 김형시(金炯時) 선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고, 일본인 교사(得德山)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첫날부터 일본역사를 가르쳤다. 어린 학생들은 심하게 동요하였다. 수업이 끝난 뒤, 윤판석은 학교 뒤뜰에서 생애소년단원과 모임을 갖고 김형시 선생을 다시 모시는 것과 일본역사수업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49] 그들은 청년회관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결의한 의견을 피력하고, 강경신문과 유지들을 연이어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날이었다. 일본인 교사는 상애소년단 어린이들에게 손들고 나오라고 야단치며, 윤판석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에게 상애소년단을 제속하려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윤판석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가 하면 책상의 책들을 내던져 버렸다. 화가 난 윤판석은 키 작

---

41 송장헌, 「대전·충남지역 교회사 연구」, 〈표35〉 충남성결교회 목회자 일람표(1913-1926) 참조.

42 "충청지방수양회," 『활천』, 제2권 제12호(1924. 11), 55.

43 "강경교회헌당식," 『활천』, 제2권 제12호(1924. 11), 55.

44 이병희, "강경이 낳은 천재," 윤판석 편, 『간증백서』, (서울: 성광문화사, 1970), 50.

45 논산군에 소속된 30여 개 서당이 글짓기 대회를 열었는데, 9세였던 윤판석은 장원급제하였고, 11세에 강경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보다 운동과 체조가 뛰어났다. 12세에는 강경청년회에서 개최한 웅변대회에 참석하여 1등을 수상하는 등 활동력이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윤판석 편, 『간증백서』, 214-16.

46 윤판석은 회고록에서 강경상애소년단 출범시기를 13세 때인 1923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신문자료를 보면 강경상애소년단은 1924년에 출범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확한 연도보다는 그의 활동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상애소년총회(相愛少年總會)," 〈동아일보〉, 1924. 6. 26; 윤판석 편, 『간증백서』, (서울: 성광문화사, 1970), 33. 상애소년단은 108명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소년단들보다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경동화회," 〈동아일보〉, 1925. 8. 13; "소년척후대등산," 〈소년동아일보〉, 1925. 8. 23.

47 "상애소년총회(相愛少年總會)," 〈동아일보〉, 1925. 8. 15.

48 김병구, "강경교회가 낳은 자랑스런 장로님," 윤판석 편, 『간증백서』, 77.

49 김형시(金炯時) 선생은 1920년 11월 6일-1927년 3월 31일까지 강경보통학교에서 근무했다. 강경중앙초등학교,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문집』, (서울: 도서출판 두루, 2005), 476.

은 일본인 교사를 때려눕히고, 교장실로 달려갔다. 전날 상애소년단이 결의한대로, 윤판석은 교장에게 김형시 선생을 다시 불러 줄 것과 일본역사 수업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장이 그의 요구에 화를 내자, 윤판석은 교장이 마시던 찻종지를 들어 얼굴을 때리고 그 길로 7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떠났다. 이일로 그는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50]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은 후 상애소년단은 1925년 10월 11일 제2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으나, 강경보통학교 측의 방해로 유회되기도 했다.[51] 그러나 결국 윤판석은 제2회 총회에서 제2대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윤판석은 이후 일본역사 수업거부에 참여했던 김수련의 제안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국의용군 제3로반 담당책임자로 일하며 주로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을 했다. 이때 큰 힘이 된 사람이 백신영 전도사였다.[52] 정신여학교 출신 백신영 전도사는 1919년 10월 19일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창립하였다. 애국부인회 회장에 김마리아, 부회장에 이혜경, 총무에 황에스더가 선출되었다. 백신영은 결사부장과 부산지부장을 겸하였다. 그러나 오현주의 배반으로 일경에 의해 모두 구속 수감되었다. "마치 송장을 메어오는 듯" 할 정도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백신영 전도사는 보석으로 출감되었다.[53] 부산에서 요양하던 백신영 전도사는 일

50 윤판석 편, 『간증백세』, 216-17. 8명은 윤판석 외에 이경옥, 송종순, 차중철, 박선옥, 김선옥, 이인재, 김수련 등이다.

51 "상애소년단사설," 『소년동아일보』, 1925.12.4.

52 "애국운동가 복음전도자 여성운동가 백신영 전도사 ④ 강경상애소년단사건," 『성결신문』, 2014. 4. 9.

53 반용옥, 『김마리아』 (서울: 홍성사, 2003), 194-96, 238; 김마리아는 핏발이 극도로 악화하여 마음 안 보시기를 마시면 한 대접을 넘게 토해버리고 몸이 꼬치꼬치 말라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죽은 듯이 누워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음이 올라 몸이 중병석같이 되었고 말도 제세지 못했다. "참담히 변동한 김마리아," 『동아일보』, 1920. 5. 24; 김마리아 보석입출 "게 백신영도 복음 가능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석 출감되었다. "김마리아 보석, 백신영과 함께 보석," 『동아일보』, 1920. 5. 26; "백신영 입원," 『조선일보』, 1920. 7. 29; "백신영 여사

제의 감시를 받으며 1922년 강경교회 여교역자로 부임하였다. 이런 백신영 전도사에게 어린 윤판석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신앙인의 삶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배우며 성장했다.

백신영 전도사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이다. 석동리 기도처에서는 강경교회 백신영 전도부인과 은산교회 남명희 전도부인을 초청하여 1922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부흥회를 열었다. 새벽에는 기도회로, 오전에는 여성중심으로 창세기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로 모였다. 집회기간에 결심자 16명과 회개자 4명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집회였다.[54] 백신영 전도사의 사역에는 고난 받는 영혼들을 향한 불불는 사랑이 있었고, 그것이 민족운동이나 신앙으로 발현된 것이다.

상애소년단의 활동에 대하여,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소년운동"으로 규정하였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55] 상애소년단의 중심에 있었던 윤판석의 의식과 행동은 후에 있을 신사참배를 거부한 강경교회 어린이들에게 적지 않게 도전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김복희 선생과 강경교회 어린이 신사참배 거부사건

일제는 한일합방이후 신사(神祠) 설치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확장시켰다. 일제는 처음에 일본인들의 결속을 위한 방책으로 삼았던 신사를 시간이 지나면서 한민족을 지배하고 동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56]

출옥 고향부산으로 갔다." (동아일보), 1922. 4. 22; 백신영 전도사의 공판기록은 최은희 편저의 『조국을 찾기까지(중)』 (서울: 탐구당, 1973), 461-62를 참고하라.

54 "성동리기도실 부흥회," 『활천』, 제1권 제3호.(1923. 2), 53.

55 "강경상애소년단에게(축하와 권면의 글)," (동아일보), 1925. 8. 12.

56 한석희,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 (서울: 기독교문서, 1990), 144. 조선총독부는

1919년 41개였던 신사가 1925년에는 108개에 이를 정도로 한반도 전역에 급속히 확장되었다.[57] 이는 신사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결과다. 일제는 1917년부터 연서자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58] 강경에도 1917년 33명이 "신사장립허가(神社創立許可)"를 요청한 뒤, 허가서를 받아 옥녀봉에 신사를 설치했다.[59]

일제는 신사 확대만 아니라 정점에 있던 신궁(神宮) 설립도 기획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제는 대만에 대만신궁을 세운 뒤, 한국에도 신궁설립을 계획한 것이다. 1912년 총독부는 신궁설립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919년 남산에 20만평의 대지를 확보하였다.[60] 일제는 1925년 신사의 정점에 있었던 조선신궁 완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보통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924년 10월 11일은 태신궁(太神宮)이라는 신사에 본격적으로 참배하기 전에 준비하던 예제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예제일에는 어린 학생들이 참배하였다. 예제일이었던 10월 11일 강경공립보통학교 교장 미야무레는 어린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61] 교장은 열렬한 신도주의자로 학생들에게 일 년에도 여러 차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인물이다. 교장의 일방적인 신사참배 강요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강경보통학교 교사 김복희(金福熙)다.[62] 김복희 선생은

신사제도를 통하여 한국을 식민화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57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29), 690.

58 《조선총독부령》 제21호(1917. 3. 22). 제2조 신사(神祠)를 설립하고자 하면 승경자(崇敬者) 10명 이상이 연서하고 왼쪽의 사항을 구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하다.

59 《조선총독부 관보》 제1459호(1917. 6. 15).

60 남정옥, "식민 지배의 상징-조선 신궁-신사," 《한국일보》, 2010. 4. 26.

61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정상: 제국지방행정학회, 1927), 501-9. 참조.

62 강경중앙초등학교,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문집》, 476. 김복희 선생은

보수적인 기독교가 강했던 평남출신으로 1921년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63] 신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년이 지난 뒤에 강경보통학교로 발령 받았다. 1923년 8월 23일 부임한 김복희 선생은 강경교회에 등록하고 서북지역의 보수적인 신앙을 이어갔다. 특히 김복희 선생은 강경교회에서 민족주의 의식이 투철했던 백신영 전도사의 신앙지도와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체득하였다. 그 결정체가 신사참배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학생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면, 그는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 만약 거기에 가고자 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뜻대로 하거라. 종교는 어떤 과녁으로도 좌우할 수 없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단 종교 그 자체의 권위만 빼고, 부모님께서 혹은 목자나 전도사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64]

또한 일본인 교사들이 신사참배 거부에 동참한 어린이들을 책망하면, 그는 "아무 방어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부끄러운 짓"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65] 이러한 김복희 선생의 태도에 교장은 사직할 것을 종용했다. 사유를 물으니 "가정형편"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된다는 교장의 요구에, 김복희 선생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가정형편이 심각한 것이 없다며 거부하였다. 김복희 선생은 사직서 내용에 "신사에 참배치 아니한 죄"라고 적시하겠다고 주장하자 교

강경교회 어린이 신사참배거부사건의 선봉자로 꼽려 1924년 10월 강제 휴직당했다.

63 "官立學校卒業者·平壤女子高等普通學校本科," 《조선총독부 관보》 제2633호(1921. 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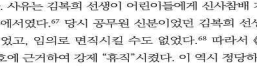
64 J. Cadars, Petits confesseurs de la foi et cuillerees de riz', *Les Mission Catholique* 58 (1925), 76.

65 위의 글.

장은 그것을 만류했다.[66]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가진 논산군수는 "강제 휴직"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김복희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신사참배 거부를 선동했다는 이유에서였다.[67]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복희 선생은 면직대상자가 아니었고, 임의로 면직시킬 수도 없었다.[68] 따라서 《문관분한령》 제11조 4호에 근거하여 강제 "휴직"시켰다. 이 역시 정당하지 못한 편법이었다.

<표4-2-5> 강경교회 어린이 신사참배 거부사건



신사참배 거부의 두 번째 인물들은 강경교회 어린이들이었다. 『활천』에 실린 (표4-2-5)의 내용을 보면, 약 57명의 학생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대부분이 강경교회 어린이들임을 밝혔다.[69] 강경교회 한 어린이는

---

66 "부리던 휴직명령." 《조선일보》, 1924. 11. 4.
67 《기밀》, 제193호.(1924. 12. 23.).
68 《문관분한령》, 칙령 제62호.(1899. 3. 28.).
69 "신사에 불배하고 면직을 당해." 『활천』, 제2권 13호.(1924. 12), 45-6. 『활천』에서는 "충남강경교회신사인 강경공립보통학교 여교사 김복희양과 그 교회주일학교 학생인 강경공립보통학교 남녀학생 57명"으로, 천주교 자료에는 천주교인 20명, 개신교인 6명으로 구분하였다. 『조선교육사고』, (경성: 재국지방행정학, 1927), 501-9에서 다가하시 (高橋 薗吉)는 예수교인 약40명(그 외 26명은 결석)으로 표기했다. 여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

• 강경보통학교 교사(일동)/ 김복희 선생은 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 교장은 중앙에 위치

"천조 대신에게 바치는 의식은 죄의식 없이 참석할 수 있지만 절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답하였고, 천주교인이었던 최만나 어린이는 신사참배 거부이유를 "신부님과 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나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70] 어린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학생을 조카로 둔 강경의 한 목사는 학교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나의 조카는 신사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퇴학을 시킨다면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71]

교장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신사참배하든 아니면 퇴학당하든 둘 중의 하나

하기에 일단 『활천』의 자료를 인용하겠다: 한석희, 『일제의 종교 침략사』, 142.
70 J. Cadars, Petits confesseurs de la foi et cuillerees de riz, 455, 463.
71 위의 글, 465.

를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이었다. 이 때문에 신앙을 위하여 학교를 포기한 학생이 적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방침에 반발하여 동맹휴학을 계획하였다. 동맹휴학을 꿈꾸한 5명의 어린이도 학교당국에 발각되어 정학을 당했다.[72] 강경교회 어린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몸부림은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73] 그들의 태도를 뒤따르려는 학생들도 연이어 나올 정도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74]

교장이나 교육부의 입장은 신사는 조상숭배일 뿐 종교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변명했다. 교육의 일환일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1930년대 들어서 본색이 드러났다. 일제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일체감을 위하여 신사참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부 기독교 인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신사참배를 수용하였다.

강경교회 어린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를 포기할 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배움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 어른들은 일제와 타협하여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다. 교회사에서는 이를 가리켜 "기독교의 훼절"이라고 부른다.

강경교회는 1924년 복옥동 93번지에 아름다운 한옥예배당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의 성별된 두 자녀"의 헌신으로 세워진 한옥예배당은 질곡

---

[72] "분규중의 강경보교생도 필경 정학처분," (조선일보), 1924. 11. 28. "정학처분이 내려진 어린이들은 신재순, 임병일, 이화자, 김영희, 이개동 등이다.

[73] "강경교장과 학부모 갈등," (조선일보), 1924. 10. 23; "강경보교 분규(사설)," (조선일보), 1924. 10. 23; "강계 신사참배문제(상)," (동아일보), 1925. 3. 18; "강계 신사참배 문제(하)," (동아일보), 1925. 3. 19.

[74] "강경보교-한주호 신사참배 거절," (동아일보), 1925. 5. 25; "강경보교-한춘식 신사참배 거절," (동아일보), 1925. 5. 29.

의 어두움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 호시다마라 했던가. 성전봉헌 전후로 강경교회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겪었다. 봉헌 전에는 상애초년단 윤판석 어린이의 일본역사교육삐지 요구사건이, 봉헌 후에는 김복희 선생과 어린이 신사참배 거부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사건으로 이인범 전도사는 더 이상 강경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었다. 교단차원에서 입종윤 전도사와 사역자를 바꿈으로 강경교회는 서슬퍼런 일제의 탄압을 피해갈 수 있었다.